

## 보고 싶은 영서에게!

보내 준 글과 사진(3매), 잘 받았어. 연구에 바쁜 가운데도 e-mail도 보내주고 문집에 실을 원고도 보내주어서 정말 고맙고 반갑기 그지없어.

아마 너야 말로 그 누구보다도 모교를 사랑하고 우리 동기들을 만나고 싶을 거야. 너는 우리 학년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하였고, 우리의 자랑이었지 않니. 모교 후배들에게도 장학금을 꾸준히 보냈지. 모교 50주년 행사 때도 못 와서 명석이가 너에게 주는 공로상을 대신 받았지. 잘 알고 있어. 그리고 바로 그날 너는 "Strength of France"라는 아티클을 쓰고 있었군. 너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야 알았어.

너는 미국에서 한국을 떠난 Outsider로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한국의 청년들을 보니까 제대로 본 것 같아.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너의 글을 진작 접하지 못한 게 한스러워. 다음 학기 강의부터 너의 글을 많이 인용할게. 1950년대 우리 대학 다닐 때, 실존철학과 실존문학이 한참 붐이었지, 너의 글에 지적한 대로 실존의 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Sartre의 불란서 그 청년에게 전한 말이 현 한국의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, 학제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우리 국민들의 회피적이고 소극적이며, 패배주의적인 관념을 잘 지적하고 있어. 전적으로 동감이야.

너의 홈페이지 열어보기 전에는 너야말로 노벨상에 도전하는 세계적인 학자이기에 전공분야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외골수인 줄 알았는데. 그렇지 않아서 정말 존경스러워. 백남준이나 정명훈이가 그 분야의 스킬과 테크닉만으로 그렇게 세계적인 존재가 된 건 아니지. Top Class의 인재가 되면, '어느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'는 一以貫之의 경지가 된다는데, 너야말로 그런 경지에 이른 것 같아. 시간 나는 대로 너의 홈페이지 열어 볼게.

그러나 저러나 이번에는 꼭 한국에 한 번 나오기를 고대했는데 정말 아쉽다.

나는 사범대학을 나와 고등학교 교사생활을 좀 하다가 서울교육대학에서 이초식(후에 건대를 거쳐 고대에서 정년), 구광조(후에 나와 같이 단국대에서 같이 정년)와 같이 근무하다가 단국대학으로 옮겨, 2000년에 정년했지. 한국에서는 65세 정년이 엄격하지. 그래도 아직 시내의 몇 대학원에서 강의는

맡고 있고,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의 이사장으로서 봉사하고 있어. 나의 주 관심 분야는 교육행정과 정책이고, 단독 저서만도 10여권이 되니까.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셈이지.

기회 봐서 또 연락할 게. 아쉬운 것은 너에게 한글 e-mail을 보낼 수 없다는 거야. 혹시 네 컴퓨터가 한글로 송신은 못해도, 한글 e-mail은 받을 수 있지 않니?

금년 여름, 유난히 덥다는데, 건강에 유의하고,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, 이만 줄일게.

2004년 7월 25일

남정걸 보냄

남정걸

서울 관악구 봉천11동

현역 A. 102-1502

151-795

Seoul, Korea

BY AIR MAIL  
PAR AVION